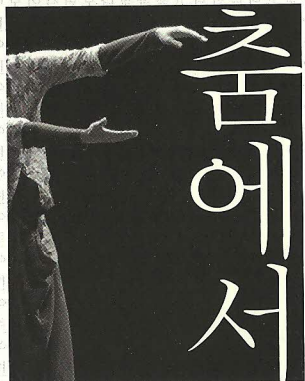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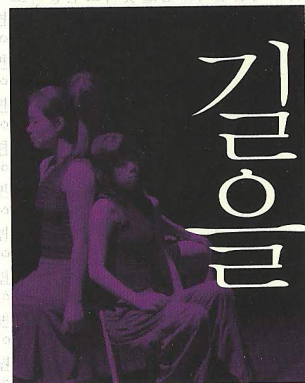
연분홍춤프로젝트 확장

2009 YeonBunHong Dance Project Expa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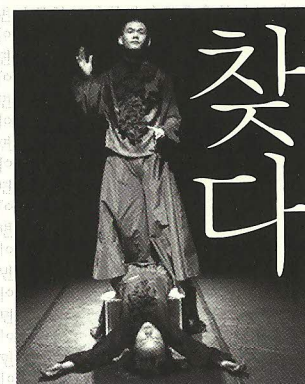
프로젝트 PROJECT_I



춤에서



길을



찾는다

2009. 12.3 (THU) _ 4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조희정

Choreographer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수로
연분홍상임단원
필라델피아 댄스페스티벌 'Feet 2000' 출연
부산무용콩쿨 동상 수상
제6회 신인춤 젊고 푸른 춤꾼 '행복중후군' 안무
부산현대무용단 기획공연 '흔들리는 뱀' 안무
제20회 국제현대무용제 출연
제22회 서울무용제 출연
국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동동 2030' 출연
목포우수마당극제전 '그렇그렇' 안무 및 출연

박인영

Choreographer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트러스트 기획공연 'communication' 안무 및 출연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 '무희' 안무 및 출연
제3회 연분홍 '해피엔드' 안무 및 출연
제4회 연분홍 '나쁜 여자' 안무 및 출연
제6회 연분홍 'take a break' 안무
춤 단체 댄스디바 대표 역임

강희정

Choreographer

경성대 무용학과 졸업
일리노이 주립대학 무용과 MFA 석사 졸업
현대 무용단 'Zoom' 대표 역임
예술공동체 '마르' 대표
경성대학교 초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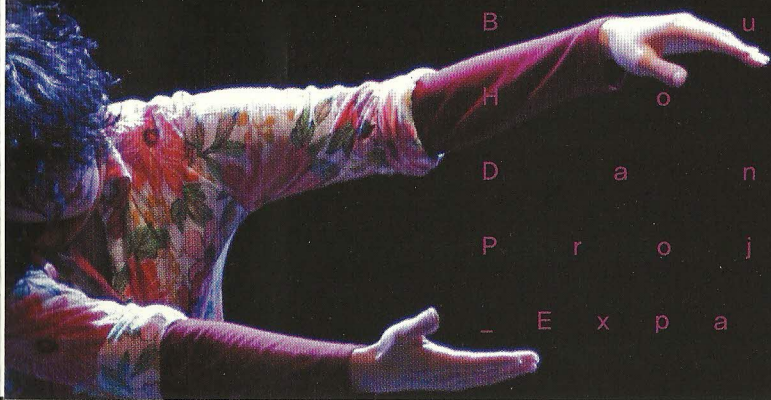
LAM, HEAR, AGAIN, 창, 비(Rain), 순수, 다섯개의 기둥,
전사, 카페 드 레인, 청춘, 맨발로 하늘을 걷다, 의자,
꿈지락거리는 구두를 벗다 가스펠, 강릉, 그리스, 비연소,
빙고, 개인적 중력, 로시난테의 편자

#1. 그 골목이 품고 있는 것들.... 안무 _ 조희정

두 손을 나란히 잡고,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 무릎을 내려 눈을 미쳤습니다.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잠깐 머물다 떠나버리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주변을 살펴본다.
가끔은 고개 들어 하늘을 보듯 둘러본다.
언제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조용히, 사실은 보기 불편한 모습으로 그들은 존재한다.
우리는 자연스레 연민의 시선을 보낸다. 도덕적인 반응을 해야 함에 충실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들이 조용히 있어도 불편한 모습이다.
연민의 시선이 그들을 더 힘들고 외롭게 하는 지도 모른다.
그들이 굳건히 지켜 나가고 있는 용기와 희망, 꿈을 우리는 한 마디의 말과 스쳐지나가는 시선으로 무너트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들의 용기와 희망 꿈은 어쩌면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의 꿈과 희망, 잃어버린 용기가 아닐까??

출연 _ 김수현, 김현진, 조현배, 조익준



Y e o n
B u n
H o n g
D a n c e
P r o j e c t
_ E x p a n s i o n

#2

Speak for yourself 안무 _ 박은영 출연 _ 박근영, 이연주

현실은 가벼움과 무거움, 진실과 거짓, 안과 밖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합니다.
이 모호성은 결국 현실도피로 이어져 상처와 뜨거움이라는 양분으로부터 우리를 무심하게 만들고,
뜨거움을 움켜쥐고있던 심장은 어느덧 두근거림을 잊게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두드리고 찾아야 할지는 모르나,
감정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받아들이며 자신을 열어가고 소리쳐왔습니다.
우리들 안에 믿음이라는 용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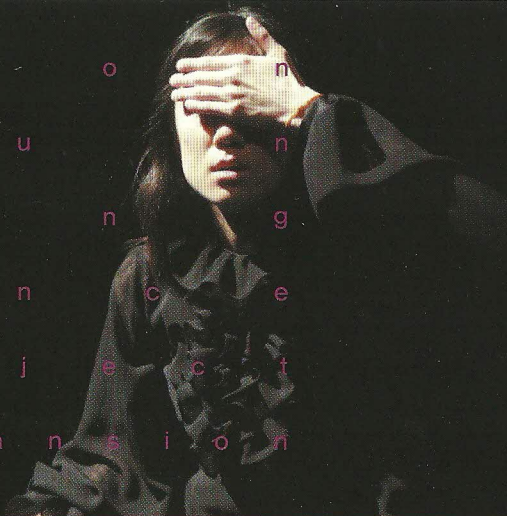
춤을찾다보면

길이보이고
길을찾다보면나를찾고너를만나고

#3. 농담 안무 _ 강희정 출연 _ 김종현, 김초슬, 김동석

기도해도 소용없다.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바람에 날리는 먼지가 추는 춤처럼 가벼운 것을
주인이 되기 위해 꿈꾸는 또 다른 시도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뒤통거림과 같이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어쩌면 운명이 죽음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

Y e o n
B u n
H o n g
D a n c e
P r o j e c t
_ E x p a n s i o n



연분홍은 2001년 부산지역의 젊은 춤꾼들을 중심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춤을 사랑하고 춤추기를 열망하는 춤꾼들이 형식과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춤 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춤꾼들이 연분홍의 주인인 자유로운 페스티벌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01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정기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연분홍에서는 젊은 춤꾼들이 자신의 개성과 창작세계를 마음껏 드러내는 실험적인 춤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춤이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 모든 것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기회로 삼아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정서를 춤으로 구현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목포, 진주 등 타 지역과의 활발한 공연 및 교류를 통해 한국 현대춤의 새로운 무게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부산시 공연예술 집중육성단체에 선정되어 3년간 다양한 공연활동을 지원받으며 춤 창작을 위한 탈춤, 무대캐커니즘 워크숍,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 대상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분홍 춤 프로젝트 공연 일정 YeonBunHong Dance Project _ Schedule

프로젝트 Project_II

12.20 (SUN) 5:00 PM

Expansion_확장 ver.

춤에서 길을 찾다 with 백철호

부산민주공원 작은방

프로젝트 Project_III
춤열전 II

12.23 (WED) 7:30 PM

임현미의춤

Cantabile 칸타빌레

부산민주공원 작은방

STAFF_

예술감독 임현미 무대감독 손재서 조명감독 이동진 사진 이장수
영상 장희철, 김동진 광고디자인 구세은 페퍼민터 기획 원향미

주최 춤패 연분홍 주관 춤추는사람들 후원 부산광역시
공연문의 010-2756-1962 / 019-516-2201